



복유립 교육 기행
정애경 외 지음

현직교사들이 체험한 복유립 교육

많은 이들은 왜 평등, 자유, 실용, 믿음 등으로 표현되는 복유립 교육에 열광하는가? 언제부터인가 교육은 물론 가구나 디자인까지 복유립은 한국인의 '로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복유립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현실을 돌아보며 새로운 교육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서울국제교 정애경 교사 외 14명의 교사들이 펴낸 '복유립 교육 기행'은 저자들이 복유립 연수와 체험에서 얻은 내용을 묶어낸 것이다.

1부는 복유립 신화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근원과 사회적 연대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살펴본다. 그들의 철학이 역사와 사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2부는 핀란드 등 복유립 3개국 탐방을 통해 저자들이 사유한 교육적 시각과 성찰이 담겨 있다. 3부는 복유립 교육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이를 어떤 관점으로 재조명해야 하는지 제언을 하고 있다.

〈살림터·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벌거숭이들
김태용 지음

웃음 토대로 혼돈·질서 포착

문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수상 작가 김태용의 두 번째 장편 '벌거숭이들'이 출간됐다. 2005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작가는 소설집 '풀밭 위의 돼지', '포주 이야기'와 장편 '숨김없이 남김없이' 등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소설이라는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작가의 스타일은 문학의 어떤 계보를 찾는 일이 무의미할 정도로 독특하다. 문학평론가 조효원은 김 작가의 소설이 은유와 직유, 환유 같은 술한 언어 질서에도 불구하고 혼돈과 질서가 뒤엉킨 순간을 포착한다고도 의존하지 않는 벌거벗은 언어를 구사한다고 본다. 단순한 재미에 이끌리는 독자라면 소설이 개그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웃음을 토대로 혼돈과 질서가 뒤엉킨 순간을 포착한다. '인간을 웃다 죽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작가의 치밀한 전략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지점이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미인’은 누구를 위해 웃고름 푸나

간송미술 36-회화

백인산 지음



윤두서·김홍도·정선...

옛 그림 36점 통해

조선의 삶과 문화 들춰보기

혜원(蕙園) 신윤복은 단원(檀園) 김홍도, 오원(吾園) 장승업과 함께 조선시대 화단의 '삼원(三圓)'이자 조선 3대 풍속화가로 꼽힌다. 하지만 혜원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만 알려진 바가 없다. 다양한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혜원이 여자였다"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나온 '설'이다. 하지만 혜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미인도'를 보면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가름한 얼굴에 반듯한 이마, 얇은 눈썹과 가름한 눈, 오목한 코와 앵두 같은 도톰한 입술, 한눈에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미인의 모습이다. 백미는 여인의 표정이다. 노리개를 만지작거리며 웃고름을 푸는 손은 '아한' 느낌을 주지만 무심한 듯 몽환적인 표정과 맑고 그윽한 눈빛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읽힌다. '미인도'에서 여인의 표정을 읽었다면 그녀의 눈이 바라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진다. '혜원'. 그녀는 신윤복의 호인 혜원을 응시하고 있다. 마음에는 품고 있지만 사랑을 나누지는 못한 여인을 향한 혜원의 마음이 아닐까.

국보급 문화재로 가득한 간송미술관은 우리 미술의 보물창고로 불린다. 최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3년 일정으로 간송미술관 소장품 기획 전시가 진행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간송미술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이 크다. 간송미술관은 1년에 단 2차례의 기획전만 진행했던 터라 좀처럼 많은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

DDP 전시와 함께 간송 미술이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기 시작했다.

간송미술관 백인산 연구실장이 1000여 점이 넘는 소장품 중에서 36점의 그림을 골라 '간송미술36-회화'를 펴냈다. 지난 24년 동안 간송 미술 연구에 힘써 온 저자는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해 신사임당의 '포도', 윤두서의 '심산지록', 정선의 '풍악내산총림', 심사정의 '외통암소집도', 김홍도의 '황묘농집',

김득신의 '야묘도주', 김정희의 '적설만산', 장승업의 '삼인문년' 등을 통해 조선시대 문화와 예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이야기한다.

책의 첫 장에 등장하는 작품은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이다. 이 그림은 5만 원권 지폐에 실린 신사임당 초상 옆에 도안으로 들어갔다. 저자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진다. '이 작품이 신사임당의 작품이 확실한가?'라고. 백 실장은 "초충도 등 신사임당의 다른 작품들도 그의 붓끝에서 나온 작품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임당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백 실장은 아름다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그리고 미술 작품을 보기 전에는 책 등 관련 자료를 절대 읽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심지어는 작품 앞에 있는 설명도 보지 말고, 그냥 작품과 일대일로 마주하라고 조언한다.

"흔히 이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아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자기가 알아낸 것도 아니고 남이 알려 준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구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책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더 알고 싶다,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과의 만남은 그냥 가서 감각적으로 마주치면 됩니다." 〈컬처그라퍼·2만원〉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신윤복 '미인도'

畫題

풀어헤친 화가의 가슴속에 붉기운 가득하니
붓끝은 능히 만물의 초상화를 그려낸다

“미인의 시선은 ‘蕙園’에 머문다
이 그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인은 영원토록 ‘혜원’만 보고 있을 것이다”
〈본문 중〉

임란 극복한 ‘사령탑’ 류성룡의 인간적인 면모



류성룡의 징비
박기현 지음

임진왜란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아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그들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기용했던 사령탑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류성룡. '징비록'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임란 당시 조선에 파견된 명군의 온갖 횡포와 분할 획책을 저지한 국경 책임자다.

지금껏 '징비록'은 많이 번역돼 출간됐지만 정작 류성룡을 연구해 출간한 책은 거의 없었다.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겸임교수 박기현 씨가 펴낸 '류성룡의 징비'에는 인간 류성룡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류성룡을 깊이 만나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을 직접 방문해 후손들로부터 기록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내용도 꼼꼼히 들었다.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명제상 류성룡의 다양한 모습이다. 여기에는 왜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전쟁 중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위해 군량을 푸는 어머니 같은 면모, 의병과 승병을 규합해 전쟁

을 막아냈던 지략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조선에 맞는 축성법을 연구해 쓴 '축성방략'을 보급하는 등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금 전매를 풀어 조선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강개시를 열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 등이 기술돼 있다.

저자는 류성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명쾌하고 유용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전시 수상'이었다고 본다. 21세기 중국, 미국, 일본이라는 열강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 '징비록'과 류성룡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번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시루·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국 이익 먼저... 향후 김정은-시진핑 관계는



북한과 중국
고미요지 지음

북한과 중국 양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양국 지도자가 의도하는 바는 매우 다르다. 김정은이 권력 기반을 다져 3대 세습을 고착화하고자 하는 반면, 시진핑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다. 도쿄신문 외교 안보 담당 편집위원

인 고미요지가 펴낸 '북한과 중국'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북중 관계를 들여다본다. 이제 북중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국가로 존속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중 FTA, 한류 열풍으로 한국과 가까워진 듯하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주요 사안에서는 원론적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북한이 경제난으로 붕괴하거나 중국이 한국 편에 설 것이라는 순진한 견해는 힘을 잃고 만다. 〈한울·2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 전 시공 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